



해운대구 평생학습을 보려면 이곳으로 오라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 오늘 대천공원 개최

제12회 해운대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가 10월 1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평생학습, 행복의 길로 향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55개 평생교육기관이 참가하며 팬시우드, 한지공예, 도자기, 3D프린팅, 태극기 만들기, 골프체험 등 60여개의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을 제공한다. 평생학습 체험은 100원 이상 자율기부를 통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한 돈은 소외계층에게 사용될 예정인데, 주민들이 배움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담긴 이벤트이다. 평생교육기관과 동 주민센터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주민들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연극,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통기타 공연과 각 동을 대표하여 재능과 끼를 뽐내는 주민자치 경연대회는 축제의 흥을 돋울 것이다. 해운대구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12회째 축제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배움의 성과를 공유하고 배움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자리로 활용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축제 준비

를 총괄하는 담당자는 “축제가 평생학습을 함께 나누고 주민 간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축제의 주인인 해운대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가 더욱 빛나길 기대해본다.



이은실 구민기자
yes0915kr@daum.net

‘늘 배움’ 창간

주민의 눈으로 평생학습 알린다



해운대구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

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교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다도, 서예, 요가, 탁구교실까지 모두 평생학습이다. 하지만 평생학습을 모르거나 그 의미에 대해 생소한 주민들이 많다. 이에 해운대구는 평생학습 관련 소식을 널리 알릴 매체의 필요성을 느꼈고, 평생학습 명예구민기자 15명을 양성하여 10월 11일

첫 신문을 발행했다.

앞으로 발행하게 될 평생학습신문 ‘늘 배움’은 평생학습기관을 소개하고 평생학습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또한 배움을 계기로 개인적 성장과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룬 우리 주변 이웃의 이야기를 담아 낼 것이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창간되는 해운대구 평생학습 신문은 앞으로 주민의 눈으로 평생학습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고은 구민기자
muogmik@daum.net

창간사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한 삶



백선기
해운대구청장

청명하고 높은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가을, 평생학습 구민기자들이 배움의 결실로 이뤄낸 늘배움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구는 2002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작가인 아서 헬프스는 “항상 무엇인가를 듣고,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항상 무엇인가를 배운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삶의 방식이며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행복을 경험하며 인간의 성장행위가 바로 학습이고 현대인에게 지속가능한 자기주도적 성장행위가 바로 평생학습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늘배움신문 창간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민이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록한 정보들은 독자들에게 평생학습 현장정보를 생동감 있고 유용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교육장좌 정보를 접하고 배움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와 모습들을 통해 평생학습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늘배움신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고 가족, 친구, 주변이웃들과 함께 평생학습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생학습 구민기자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늘배움신문이라는 결과물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연극 교실

18일 연극 ‘강아지 똥’ 공연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는 2주에 한번 연극교실이 열린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이 수업은 현재 30대~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0월18일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에서 개최하는 예술씨앗학교, 예술새싹동아리 작품발표회에서 연극 ‘강아지똥’ 공연을 선보인다. 수강생들의 연기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경 강사는 연극교실을 ‘나 찾기 놀이’라

고 표현한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이라는 틀 속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자신이 감춰둔 자아를 찾아가는 표현 놀이라는 것이다.

수업 초반에는 수강생들이 소극적인 모습이었으나 연극연습을 통해 점차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은 아주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있어 김미경 강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한다.



현재 연극 교실은 자아를 찾아 잘 표현할 수 있는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동화 ‘강아지 똥’을 재창작하여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할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강아지 똥’의 의미가 연극교실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일맥상통하여 수강생 모두가 함께 의논해 정했다고 한다.

2주에 한 번 두 시간씩 진행되는 연극교실 수업으로는 연습량이 부족하여 수업시간 외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강생으로 만났지만 잦은 연습과 만남을 통해 어느새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한다. 공연이 끝나더라도 이들은 연극동아리로서 묶여 지금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내년 연극주제도 정했다고 하니 이들의 앞날이 사뭇 궁금해진다.

최민경 구민기자 rinalos@naver.com

해운대 늘배움아카데미

Review

시와 노래, 그림이 있는 정호승 시인 힐링 콘서트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8월 22일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2층 대강당(구민홀)에서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주제로 정호승 시인 특강이 있었다. 마련된 좌석이 다 차고 바닥에까지 앉아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시인은 자기 인생에서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를 통해 사랑의 본질을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짚어주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 책임
그리고 용서이다

어느 날, 대학생인 둘째 아들이 밥상머리 앞에서 물었다. “사랑은 무엇인가요?” ‘이놈이 연애를 하나?’ 그렇게 여기고선 시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다. 그런데 그 날부터 곰곰이 사색을 했다. 그래, 사랑이란 무엇일까? 시인은 먼저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희생 끝에 내가 존립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산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무한하며 희생하는 것이라 그렇다. 사랑의 첫 번째 본질은 희생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을 떠올려보자. 선생님들은 원래 5층에 승선해 있었다. 그런데 사고 뒤, 3,4층에서 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3,4층은 학생들이 있던 곳이었다. 그들은 더 구조되기 쉬웠을 고층에서 학생들이 있던 낮은 층으로 향한 것이다. 교사로서 학생들

사랑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으리라. 세 번째, 사랑의 본질은 용서이다.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 진정으로 완성될 수 있다. 람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1668)’를 보자. 미리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다.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아들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말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아무런 말없이 용서하며 안아준다. 이를 지켜보던 첫 아들은 불공평하다고 항의한다. 자신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성실히 살아왔는데 동생은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는 나의 재산은 모두 너의 것이고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받아주는 것이라 말한다. 사랑은 이렇게 불평 등하며 불평등을 통해 둘째 아들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시인은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아들을 안는 아버지의 손 모양이다. 그의 오른 쪽은 여성, 왼쪽은 남성의 손으로 그려져 있다. 우리 안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모성을 통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음을 뜻한다고 한다.

<풍경 달다> 당신의 인생에는
누가 바람이며, 풍경인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알았다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필요할까? 그 대답을 정호승 시인은 자신의 시 ‘풍경 달다’로 했다.

우연히 운주사 절에 풍경을 단 경험을 한 정시인은 그 아름다운 소리에 반해 자신의 아파트에도 풍경을 달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바로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 풍경은 바람이, 바람은 풍경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풍경과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를 그 가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나를 풍경이게끔, 바람

이게끔 하는 존재를 다시 정의하고 생각해 보라고 시인은 답한다.

하지만 상처는요? 사랑에 따라오는
고통과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에는 희생, 책임, 용서 세 가지 본질이 있듯, 세 가지 그늘도 있다. 바로 상처, 고통, 외로움이 그것이다. 정시인은 그 세 가지의 그늘도 명료하게 정의하면서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도 제시했다. 당신의 상처는 보석인가요? 몸을 썩게 하는 독인가요? ‘진주에도 상처가 있다. 진주조개도 진주를 품어야만 진주조개다. 그리고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

진주는 조개가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보호막을 뒤집어씌운다. 그것이 진주가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어떤 조개는 방어하지 않고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그대로 둔단다. 그대로 두면 몸이 서서히 썩어서 그 조개는 살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나에게 들어온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상처는 보석이 될 수도, 아니면 나를 썩게 하는 독이 되기도 한다. 항상 날씨가 좋으면 곧 사막이 되어버린다. 내 인생에 햇빛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곧 사막이 될 것이다. 햇빛만큼 그늘도 소중하다고 정시인은 말한다.

고통 없는 삶?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은 좋으나 고통은 싫다는 사람들... 그러나 고통없는 삶은 죽음이라고 정시인은 잘라 말한다. “입관할 때 고인들 얼굴은 다 평안한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정시인은 고통이 현재의 생명, 살아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사랑의 기쁨은 순간이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라일락 향기도 순간 말으면 향기지만 계속 말으면 냄새가 됩니다.” 정

시인은 사랑만 바라는 사람은 빈 밥상 앞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정시인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고통의 정의를 내린다. 아우슈비츠의 강제수용소에 참혹한 생활을 하던 저자는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찾아냈다고 한다. 바로 끝까지 살아남아 나치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의미라고 생각한 후 저자는 기적처럼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 고통의 의미를 찾아낸 순간 더 이상 고통은 고통이 아니게 된 것이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 즉 행동이 아니라 견디는 것, 견딤이라는 자세로 맞아야하는 것입니다.”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이라는 괴테의 말을 통해 빛과 어둠은 하나이며 어둠 속에도 빛이 있음을 잊지 말자고 정시인은 말한다.

외로움은 죽음처럼
모든 인간의 본질이다

“외로움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두 가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받지 못해도 외롭고 사랑해도 외롭다. 필연적인 죽음처럼 외로움도 평생 인간을 따라다니는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아가는 동안 위안하고 위로하자고, 명쾌하게 정시인은 외로움의 해결법을 제시하며 강의를 끝냈다. 그리고 세월호의 예를 들며 마무리를 했다. “학생들이 그 곳에서 죽어가며 가족들에 문자를 남겼지요.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시와 노래, 그림, 토크로 가득 찼던 2시간 강의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그리고 정호승 시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답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사라졌다. 당신의 인생에서 사랑은 어떤 가치인가?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랑을 죽음의 순간에 남기겠는가?

이지현 구민기자
meam00@naver.com

배리어프리 영화로 장애인도 영화 즐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화면해설교육

시각, 청각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
영화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의 자질
지속적인 열의와 나눔을 즐기는 자세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영화를 즐기
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만드는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를 위해 화면해설교육
을 하고 있다.

먼저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본래
건축 용어로, ‘장벽 없는 건축설계’라는
뜻이다.

배리어프리 영화란 이 개념을 영화에
적용시킨 것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는 자막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
성해설을 넣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영화를 말한
다. 그러나 어찌 장애인뿐이겠는가. 노
인인구의 절반이 약시와 약맹을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복지, 혹은 서
비스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소리를 어떻게 글로 쓰죠?”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자막은
음악이 나오면 음표표시를, 자동차소리
가 나면 ‘자동차소리가 난다’ 또는 ‘부
릉부릉’이라고 적어준다. 또 화면만으
로는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
다. 그럴 때는 남자주인공이 이야기하
면 (남자주인공), 여자주인공이면 (여
자주인공)이라고 써 주어 이해를 돕는
다. 시각장애인은 비치되어 있는 이어
폰을 끼고 녹음된 성우의 화면해설을
들으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작업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한 작업이다.

시각, 청각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 영
화의 흐름을 잘 살려주어야 하는 만큼
작가의 글재주나 섬세함, 영화 텍스트
에 대한 깊은 이해 등 참 많은 자질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
속적인 열의와 나눔을 즐기는 자세일
것이다.

“부산에서도 배리어프리
배울 수 있나요?”

부산의 배리어프리강좌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동안은 방송작가, 성
우, 아나운서 등의 재능기부에 의존하
여 몇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부산시청자미디
어센터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개설되어 운용되어 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해운대구·동래구여성
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
성을 위한 화면해설인력양성과정으로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
설제작교육’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
리어프리자막해설’ 초·중급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하반기교육일정은 2014년 국제영화제
이후로 예정되어있다. 교육은 상반기교
육과정에 ‘심화과정’을 추가 신설하여,
화면해설과 자막기술과정 각 15명을 선
발, 교육 후 부산 국제영화제 작품을 제
작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회원 누
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받는다. 구
체적인 모집 일정은 시청자미디어센터(
<http://www.comc.or.kr/>) 강좌 수강란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수임 구민기자
maruco15@naver.com



취업을 위한 빠른 지름길 효성직업전문학교

개인 부담 없이 교통비, 식대까지 국가지원

서류, 면접, 자격증까지 모든부분을 상담사가 직접 코칭

70대 이상 명퇴자들을 위한 자연생태복원과정

출퇴근이 어려운 주부들에게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1동에 있는 효성직업전문학교는 1995년
설립 때부터 노동부가 선정한 실업자 재취
직 교육 훈련기관이다. 여러 기관에서 표창
을 받을 정도로 구민들의 일자리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쏟는 열정은 대단하다.

주요 훈련은 CAD/CAM을 이용한 기계설
계, 정보보안전문가, 웹디자인(영상컨텐츠
제작), 조경기능사, 자연생태복원, 중장비
(굴삭기,지게차) 과정이 있다.

모든 과정은 개인부담금 없이 100% 전액
무료로 훈련비가 지원되며, 월 최대 41만6
천원까지 훈련수당도 지급이 된다. 과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과, 내일배움카드,
부산시맞춤훈련, 재직자훈련으로 나누어지

는데 대상과, 훈련비지원액, 훈련기간이 모
두 다르다.

효성직업전문학교는 20대 초반부터 많게
는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훈
련생들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젊은 연령
층들은 기계설계, 정보보안을 주로 선택하
며, 비교적 높은 연령대의 훈련생들은 조
경이나 중장비 훈련을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대폭 넓혔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되면 최
소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을 한다. 특히, 기계설계의 경
우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와 ATC 자격증
합격률 100%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 외
조경, 중장비 훈련도 자격증 합격률이 85%
이상이라고 한다.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정보기술, 통
신/서비스관리/네트워크관리, 프로젝트

구축/운영, 케이블방송사, 기계설계CAD,
INVENTOR, CATIA, 건설/건축업체, 금
속/금형/중공업, 조선기자재 등 관련 업체
로 연계된다. 수강생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 필요한 서류, 면접, 자격증까지 모든
부분을 전문상담사와 담당교사가 직접 코
칭해 주고 있다. 특히 CAD/CAM을 이용
한 기계설계과정과 자연생태복원 과정의
경우 취업률이 평균 70% 이상으로, 훈련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취업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명퇴자들을 위한 자연생태복원과정
은 수료 후 초중고등학교 조경관리와 해운
대구 조경사업에 투입되고 있어 수강생이
늘고 있으며 특히 일반인뿐만 장애인들도
수강해 취업에 나서고 있다.”고 박명순 교
장은 말한다.

효성직업전문학교에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고용센터 취업지원팀에서 상담을 받
은 후 상담필증 또는 내일배움카드를 받아
오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효성직업전문
학교 051-746-8768로 문의하면 상담사가
상세히 알려준다고 한다.

전용미 구민기자
ttoto14@hanmail.net

평생학습은 나의 

올해 78세 윤병득 씨 서예학원 선생님이 되다

“저는 가방끈이 길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마음의 끈은 아주 길지요.
남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길지 않아 남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만 같았던 윤병득 씨(78세, 반송동). 그런 그가 2005년 어느 날 큰딸이 배우던 서예학원을 방문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면서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로 변신한 그를 보니 ‘수적천석(水滴穿石)’이란 말이 떠올랐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끈기있게 노력해 일군 행복한 삶. 평생학습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얻은 윤병득 씨를 만났다.

선생님은 언제 서예와 인연을 맺으셨나요?

2005년 9월 27일, 서예학원에 발을 디뎠어요. 전 이날을 잊을 수 없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날이거든요. 그동안 사업하랴 직장 생활하랴 눈코 뜰 새 없이 살아왔어요. 여유를 찾기 위해 잠시 쉬고 있었던 그때 큰딸이 서예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우연히 학원을 들르게 되었어요. 큰딸이 글을 쓰는 걸 지켜보았어요. 정신을 집중하고 기를 모아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글이 되는구나! 옮겨나 한 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반송1동 서예 프로그램에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어요. 그 뒤 서예선생님의 권유로 선생님이 되었어요. 매주 금요일 초등학교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전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서예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가방끈이 길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마음의 끈은 아주 길지요. 남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때 아차하고 떠올랐어요. 교인들은 성경 구절을 써서 갖는 걸 행복이라 생각하지요. 그럼 그 일을 내가 한 번 해보자 마음먹었지요. 하느님이 제게 건강을 주셨으니 뭔가를 보답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 서예사랑은 시작됐어요. 이제 두 달만 있으면 만 9년이 되네요. 전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어요. 그 성실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성경 구절을 써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아요. 정말 행복해서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 얼굴에 웃음이 보이지 않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교육원에서 배우는 게 자기 공부에 그치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거기서 나아가 제자를 가르친다고 들어요.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될까요?

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어요. 서예교실에서

도 열심히 했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화선지 2장씩 꼭 쓰기 연습을 했어요. 기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쉽게 꼬박꼬박 연습하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성실과 인내의 열매가 오늘의 제가 아닐까요.

늦깎이 선생님이 되어 기쁘실 텐데
특히 어떨 때 보람을 느끼는지요?

언제 내가 ‘선생님’ 소리를 들어보겠어요.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부를 때 하늘을 날 것 같아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보람된 일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처음에 서예 학원에 올 때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들이 예의 바른 아이로 변해갈 때 행복해요. 전 할아버지가 되어 사랑으로 그들과 대화를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으로 지도하면 3~4개월이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걸 말로 어찌 다 표현해요. ‘아~~ 가방끈 짧은 나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데 한 몫을 했구나!’ 이게 살아가는 행복이 아닐까요.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선배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내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 망설이지 마세요.
내 나이 69세에 서예에 입문했어요.
시작이 반이니까 먼저 도전하세요.
한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뭘 해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언젠가는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애로도 있겠지만
보람이 더 클 거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적답니다.

남기자 구민기자
nnamgijaa@hanmail.net

평생학습 교육기관을 가다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주여성 교육으로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다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전문지원기관이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강좌는 한국어 교실이다. 한국문화 이해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좌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실 정규과정과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취득을 돕는 한국어교실 TOPIK반을 운영한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제자립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도 운영한다. 북아트 및 토탈공예 교육, 바리스타 양성과정, 네일아트 교육, 미용 헤어 교육, 홈패션 교육 등이 수시로 개설되어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에서는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근에 개설한 운전면허교실은 한국사회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수업은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26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 21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가족의사소통과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가족교육과 배우자 부부교육, 부모자녀 교육이 있다. 모든 교육과 상담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통번역서비스가 지원된다.

개설되는 프로그램은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 다문화행복스케치(<http://multi.busan.go.kr/>), 해운대구 다문화센터 홈페이지(<http://www.liveinkorea.kr/center/default.asp?pt=ct&cc=haeundaegu>)에서 살펴볼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전화나 방문 신청 가능하다.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1동 양운로 91 좌1동 주민센터2층
전화 051) 702-8002 / 701-8004 / 703-8009

전화경 구민기자 hkhk79@hotmail.com

김미영 구민기자 lingua8247@naver.com





예술로 소통하고 보람을 일구는 사람들

눈에 띄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찾아서

SPNTart (Share Pleasure & Treasure in Art)

한 사람의 힘은 약하다. 그러나 같은 목적과 세계관으로 모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개인의 재능을 모아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함께 나누는 'SPNT art'도 그렇다. '함께'라서 힘이 센 평생학습 동아리 'SPNT art'를 만나보자.

‘SPNT art’라는 영어로 된

동아리 이름이 낯설다.

이 이름에는 예술 속에서 나눔(Share)으로

기쁨(Pleasure)을 그리고(and),

보물(Treasure)을 찾아내고

꼬집어내자는 뜻이 담겨 있단다.

말 그대로 예술을 통해 나눔과

기쁨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임

SPNT art.

창의미술을 지향하는 SPNT art는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문화예술을 전 파한다.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만나기도 하고 일반인을 교육하기도 한다. 예술로 또래 간, 가족간 교류를 돕고 갈등해소와 여가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6명의 구성원은 모두 문화예술 강사로 맹 활약 중이며 화가, 상담사,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들을 해운대 교육지원청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으로 10년 넘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또 동아리 구성원 모두 문화재단과 해운대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재능기부로 미술 수업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들의 수업 방식은 단순한 체험 수업이 아니라 미술로 읽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생각하는 즐거움을 주는 데 집중한다.

SPNT art의 수업에는 늘 의미와 감동이 있다.

봉래동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종 만들기 작업을 하면서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했다고 한다. 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이 그림으로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백양사회복지관에서 비누 만들기 봉사를 했던 경험도 소중하단데, 중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비누를 독거노인

들께 직접 배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미술에서 끝나지 않고 봉사와 나눔으로 이어지는 수업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SPNT art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해운대문화복합센터 3층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역량강화 연구수업에서 나온 작품을 모아 구민들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를 준비 중인 마정련씨는 “사람마다 언어의 색깔이 다르듯 우리 선생님들의 색깔과 생각들을 볼 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시가 계기가 되어 일년에 한번씩 전시회를 가지고 싶다”라고 했다.

SPNT art는 오늘도 예술을 통한 소통을 꿈

꾸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에게도 바람이 있다고 한다. 바로 동아리 작업실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해운대구 평생학습관에서 연구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유로운 연구 활동이 결국 SPNT art의 에너지이기에 그들의 바람 또한 꼭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이들의 꿈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유명혜 구민기자

vision3533@nate.com



수강생이 말하는 **희망** 강좌

실버영상제작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하고 금정구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영상제작 교육을 들으신 이승기(66)씨. 이승기씨는 카메라만 들면 주변의 모든 것이 소재가 된다고 말씀하실 만큼 영상의 매력에 흠뻑 빠져 계시다. 꼭 특별한



한 날이 아니더라도 좋은 풍경이 있으면 10~15초 정도의 영상으로 촬영해 두고, 틈날 때면 음악과 함께 편집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그 때의 정감을 나누곤 하신다. 이제는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지만, 도움 받을 만한 강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신다. 복지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춰야 하는 부분과 예산에 있어서도 고급과정이 더 부담되기 때문에 주로 기초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같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상교육기관은 거리가 멀어 시간 맞추기가 힘든데다 프로그램 자체도 영문버전이라서 따라가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고 하신다. 때문에 복지관과, 영상교육기관 사이에서 이런 필요를 수렴하여 실버영

상제작 기초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후속 과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 해운대구에서도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제작 심화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고는 구민기자(O)
muogmik@daum.net

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 케어’ 교육 절실

십여년 동안 친정엄마를 케어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엄마는 오랜 세월 혼자 사셨기에 노인성 우울증이 왔고 치매로 이어졌다. 나는 엄마를 케어하면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원만하게 처리하지도 못했다. 결국 가족 모두 큰 아픔을 겪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런 일은 과연 나만의 문제일까. 가까이 노인 상담사 교육이나 케어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인 케어링 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처했더라면 양질의 돌봄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은 사실상 쉽게 접하기 힘들다. 현재 ‘한국 고령사회 교육원’이 노인 돌봄 봉사자 교육 및 노인케어링 상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상담사, 자살예방 지도사, 노인 건강관리사, 웰다잉 지도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주로 서울을 비롯한 인천, 강원지역 지자체 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산시민은 접근이 어렵다. 요즘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노인 문제는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때문에 노인의 발달, 심리, 가족문제를 공부하고 노인의 소외감, 심리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 교육과정이 절실하다.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노인 케어 정보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 주민들 생활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누구나 노년을 맞게 된다. 누군가의 손에 나를 맡길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만약 노인 케어 관련 교육이 확대된다면 내 가족, 나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노인 케어, 노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보완되길 바란다.

김덕순 구민기자
kdshsg@hotmail.com

‘배달 강좌’를 아시나요?

학습자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강좌 신청하세요!

해운대구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몸이 불편하여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민을 위해 배달강좌를 지원하고 있다. 배달강좌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주민 7명 이상이 모여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로 강사를 파견하는 학습자중심 맞춤형 방문 교육서비스이다. 해운대 늘배움터 홈페이지(http://hedu.haeundae.go.kr)를 찾아가면 약 100여개의 배달강좌를 검색할 수 있다. 또 신청은 정해진 기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는다. 올해는 모든 강좌가 접수마감 되었으며 내년 1월에 다시 신청 받는다.

□ 배달강좌 신청기준

- 배달강좌는 만20세 이상 해운대구민 7인 이상이 모여 신청할 수 있다.
- 수강료는 무료이나 교재와 재료비는 학습자 부담이다.
- 강의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해운대구에 위치한) 어디든 가능하다.
- 강좌 당 최대 20시간까지 수강 가능하다.
- 성인을 위한 강좌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과 동반시에만 가능하다.
- 신청자가 많으면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은실 구민기자 yes0915kr@daum.net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학습동아리

즐거움과 보람을 안겨주는 ‘숲둥이’

아지랑이 아른거리고 새 생명이 꿈틀대는 연두 빛의 봄

초록 숲에서 곤충과 새들이 들려주는 즉흥곡의 향연이 가득한 여름

푸르고 드높은 하늘 아래 알록달록 자연이 그려내는 수채화의 감흥에 젖는 가을

버림과 비움의 미덕에서 기다림과 희망을 꿈꾸게 하는 산야의 겨울

이처럼 변화무상한 자연을 나는 오감으로 대화하고 그와 벗하며 산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도시생활에서 자연이 보내 준 ‘사계’를 벗하며 산다는 것은 세 잎 클로버를 헤집고 찾아낸 네 잎 클로버가 주는 기쁨처럼 행운인 것 같다.

살아있을 적엔 배고프지 않게 도토리를 주고 죽어서는 땀감이나 목재를 주며 제 몸이 썩어질 땐 버섯까지 준다하여 참 좋은 나무라는 뜻을 가진 ‘참나무’, 고부간의 갈등과 애환을 담은 ‘머느리밋밋개’라는 이름을 가진 풀, 길가나 밭 땅바닥에 포복하듯 붙어 자라는 ‘땅빈대’가 ‘비단초’라는 예쁜 이름으로도 불리며 지금은 귀한 대접을 받는 약초라는 등의 숲 이야기를 만났을 때 즐거움은 컸다. 일상의 무료함에 지쳐있는 나에게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다가왔다.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담겨진 이야기를 하나 둘 알아가다 보면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지친 육체에 생기를 얻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참으로 좋았다.

내가 이처럼 자연을 벗하며 살게 된 것은 10년 전 해운대구청에서 실시한 ‘자연생태

체험 지도자양성과정’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양성과정을 마친 후 가치관이 비슷한 동료들이 모여서 즐기고 배우고 나누는 학습동아리 ‘자연사랑맘’을 결성한 것이다.

학창시절보다 더 열정적으로 모여서 배우고 배우는 일에 보람도 느끼며 학습동아리를 운영했다. 7~8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이사나 직장을 옮겨 떠나는 바람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두해 전에 동아리 이름을 ‘숲둥이’로 바꾸었고, 새내기 동료들을 맞이하여 오늘도 자연에서 놀며 배우고 배 풀면서 즐기고 있다. 생태체험안내자로서 유아부터 학부모와 성인남녀에 이르기까지 숲 놀이로 자연생태를 알게 하고, 나무와 풀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숲 놀이 안내자와 숲 해설가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찬 일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숲과 친해지고 그 소중함을 알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숲둥이’ 동료들은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정은정 학습동아리 ‘숲둥이’ 회장

도심 속 행복 발전소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배우고, 읽고, 즐기고, 나누는 주민들의 공간

주민의 화합과 배움이 있는 곳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소통하는 곳

주민 스스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곳

재송동에 위치한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는 2013년 문을 열었다.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많긴 하지만 한 번 와 본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게 된다.

먼저 1층엔 ‘행복’ 이라는 북 카페가 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책들과 안락한 의자들이 주민들을 반긴다. 북 카페 ‘행복’은 책과 따뜻한 커피가 있는 공간, 좋은 사람과 소담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 혼자 앉아 책을 읽으며 사색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책과 커피 그리고 사람이 있어 행복을 느끼며



‘행복’을 키우는 곳이다.

북 카페 ‘행복’ 옆에는 ‘해운대 역사관’이 발걸음을 머물게 한다. 해운대구의 유물 전시, 행정박물,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해운대구의 과거와 오늘이 있다. 특히 해운대의 인물과 해운대 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시대 유물은 그 시대의 생활상과 문화를 알 수 있게 해준다.

2층 웨딩홀은 실속 있게, 예쁘게, 남과 다른 행복한 결혼식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다. 평상시에는 공연과 강연으로 운영하며, 주말엔 웨딩홀로 변신한다. 좌석은 240석이며,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3층에는 각종 전시를 할 수 있는 열려있는 SUN&FUN 갤러리가



있다. 이곳에서는 작가들의 전시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3층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은 바로 헬스장. 여러 가지 헬스기구와 쾌적한 환경. 심신을 단련시키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밖에도 각종 증명서 발급하는 통합민원창구, 일자리센터, 사회적 기업 홍보관, 컴퓨터교육실, 세미나실, 동아리실, 조리실, 다목적실, 부모와 어린이가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 쉼터 등 정말 실속 있는 공간들이 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그 공간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 되어 있고 진행 중이다.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문학, 연극, 요리, 수필, 캘리그라피와 같은 프로그램이 연중 개설되고 있다.(<http://hudcc.haeundae.go.kr>)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통찰할 힘을 주는 인문학 강의는 그 중에서도 인기가 많다. 거기에 걸맞게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에는 ‘작은 인문학 도서관’이 있다. 인문학 관련 도서들이 6000여 권 비치되어있고 책을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회원증을 만들면 1인 5권 대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 ‘작은 인문학 도서관’ 옆에는 열람실이 있어 따로 책을 읽거나 공부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해운대구민을 위해 만들어진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이 가을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건 어떨지.

박영미 구민기자 seayarnp@hanmail.net

지친 마음을 치유하세요~

헤민 스님 초청 늘배움 아카데미 개최

27일(월) 오후 2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유명한 헤민 스님이 해운대를 찾는다.

해운대구는 27일 오후 2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헤

민 스님 초청 늘배움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헤민 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출간해 관계, 사랑, 그리고 마음과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온전함과 존귀함을 알아챌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쫓기듯 사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종교와 인종, 가치관을 뛰어넘어 진정한 인생의 잠언을 들려줄 예정이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헤민 스님 친필 도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 : 해운대구 교육협력과 749-5632



기자
수첩

평생학습 구민기자들의 다짐과 바람을 들어봅니다

■ 김덕순 : 적지 않은 나이에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되어 취재도 해보고 기사도 써보는 멋진 경험을 하면서 신문, 기사,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해 저 자신 많은걸 배우고 있습니다. 구민기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정수임 : 해운대는 참 화려해 보인다. 그러나 해운대사람들은 안다. 그 안에 따뜻하고, 사람 사는 냄새 물씬 나는, 우직하고 소박한 또 다른 해운대가 있다는 것을. 그 매력을 잘 전달하는 귀가 크고, 친절하 구민기자가 되고 싶다.

■ 남기자 : 배움에 목말라 헤매던 중 구민기자 모집 소식을 접하고 날개를 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자가 되고 나니 막중한 무게 때문에 기쁨은 잠시고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배우고 싶지만 길을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 김미영 : 평생학습으로 기 충전 받고 늘 새롭게 하루하루 삽시다. 그 선봉에서 모든 소

식, 알뜰히 전할 게요.

■ 김수미 : 지난여름이 그리 길지 않기도 했지만,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배우느라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처음 해보는 인터뷰를 하는 것도 너무 떨렸고, 수강생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작품들 사진 찍는 것도 진땀났다. 그래도 또 하고 싶다.

■ 이은실 : 새로운 만남과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이지현 : 기자정신을 배울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실천하겠습니다.

■ 전용미 : 쿵쿵쿵 심장이 뛴다. ‘구민기자’라는 타이틀이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내게로 왔다. 열심히 발로 보고 뜨겁게 가슴으로 쓰고 부지런히 손으로 나눔을 가져야겠다.

■ 박영미 : 평생학습정보 가득 담아 ‘사우팅맨’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나눔의 메신저가 되어 신명나게 뛰겠습니다.

기대되는 신문, 보고 싶은 신문, 기다리는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명혜 :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

구민기자로서 해야할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고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 김고은 : 평생학습 구민기자 교육을 통해 기사 쓰는 법을 배웠고, 이곳에 사는 동료들과 함께 신문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좋은 기자로 활동하는 일만이 남았다!

■ 전희경 : 첫 취재를 하던 중 왜 이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도리어 받았다. 답변이 섰듯 떠오르지 않아 우물쭈물했던 기억이 난다. 나 스스로 명확한 대답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대답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리라 다짐해본다.

■ 최민경 : 이제 시작입니다. 열심히.. 좋은 신문 만들겠습니다.

■ 박두길 : 정성을 다해 평생학습 신문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인기 강좌 - 캘리그래피

다양한 재료로 나만의 감성을 표현하라

요즘 영화나 드라마 제목, 상품 포장지에 적힌 글자들을 보면 느낌이 살아있다. 붓으로 쓴 것 같지만 서예와는 다른 맛을 느끼게 해주는 글씨. 바로 캘리그래피 때문이다. 손 글씨로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강좌 ‘캘리그래피’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부분 서예의 다른 표현정도만 알고 있던 캘리그래피는 ‘다양한 도구로 아트성을 가미한 감성글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서예는 문방사우(벼루, 먹, 종이, 붓)로 규칙적으로 쓰는 것이지만, 캘리그래피는 꼬지, 수세미, 나무막대기, 칫솔, 마스크라 등 다양한 도구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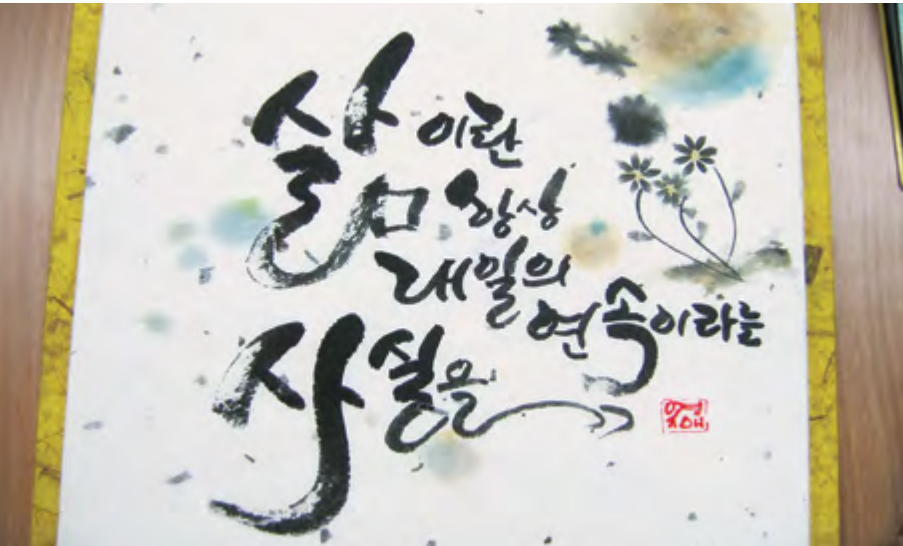
같은 붓이라도 종이재질이나 바탕에 따라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서예와는 달리 캘리그래피는 책갈피, 컵디자인, 각종 공예품 등 실생활에 응용이 가능하다. 또 먹, 물감(한국화물감이나 수채화물감), 파스텔 등으로 다양한 색표현이 가능하고, 같은 색이라도 물로 농도를 조절하여 원근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서예를 하던 사람들이 특히 관심이 높지만 꼭 글씨를 잘 쓰거나 미술을 전공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감정표현이나, 받침있는 글자를 만났을 때는 표현하는 ‘글규칙’이 있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이 글규칙을 잘 배우기만 하면 자기만의 감성을 글에 담을 수 있게 된다. 수강생들 중 일부는 예뻐서, 유행하니까, 또 절반이상은 투잡을 생각하고 배우러 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첫 수업에 하는 책갈피도 만족해한다. 수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을 하는 과정과 끝나고 난 뒤 완성된 작품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자격시험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현재 문화복합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캘리그래피 2급 과정’은 수업 중에 수시검정이 이루어진다. 출석률 80% 이상만 된다면 무난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하겠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나,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운대구에서는 현재 문화복합센터에서 ‘캘리그래피 2급과정’과, 좌1동 주민센터에서 ‘캘리그래피 강좌’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반여2동 재반무지개행복학습센터에서는 ‘캘리그래피 2급과정’이 3개월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수미 구민기자 miya7951@hanmail.net
박영미 구민기자 seayarnp@hanmail.net



가볼만한 무료강좌

평생학습기관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해운대구 정보화 제1교육장 좌1동 ☎ 051-749-4306	한글문서작성	11.3~11.14	10:00~12:00	40명
	프레지활용	11.3~11.14	13:30~15:30	40명
	인터넷정보검색·활용	11.17~11.21	10:00~12:00	40명
	컴퓨터 초보탈출	11.17~11.28	13:30~15:30	40명
	블로그만들기	11.24~11.28	10:00~12:00	40명
	엑셀활용	12.1~12.12	10:00~12:00	40명
해운대구 정보화 제2교육장 반여2동 ☎ 051-749-4306	파워포인트활용	12.1~12.12	13:30~15:30	40명
	컴퓨터 초보탈출	11.3~11.14	10:00~12:00	16명
	엑셀활용	11.17~11.28	10:00~12:00	16명
해운대구 정보화 제3교육장 재송동 ☎ 051-749-4306	컴퓨터 초보탈출	12.1~12.12	10:00~12:00	16명
	컴퓨터 초보탈출	11.3~11.14	13:30~15:30	24명
	한글문서작성	11.17~11.28	13:30~15:30	24명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반송2동 ☎ 051-542-0196	엑셀활용	12.1~12.12	13:30~15:30	24명
	희망스포츠클럽	1.3~11.28 (매주 금)	15:00~17:00	초등생40명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송2동 ☎ 051-543-2431	신바람노래교실	연중(2,4주 화)	13:00~14:30	노인10명
	댄스교실	연중(매주 월)	9:30~11:00	30명
	운봉열린마당	연중(매주 목)	10:00~11:00	제한없음
부산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원, 석대동 ☎ 051-528-7611	바둑교실	연중(매주 월-금)	13:00~18:00	20명
	컴퓨터기초	11월~12월	9:20~10:20	장애인12명
	모바일	11월~12월	13:00~14:00	장애인12명